

시대따라 '삼의일발' 개념 변화

선우도량 '출가자 경제윤리성' 조사내용 분석

고계 최초로 실시된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는 '무소유' 정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이 승랍 4세이하 재가자 29세 이하에서 불교계 젊은층의 의식변화를 보여준 관심을 끌고있다.

출가수행자의 기본윤리는 불교교단의 발달과정에서 삼의일발(三衣一鉢, 옷 세벌 하루 한발)의 원칙만이 고수된 것이 아니라 6종류의 소지품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고, 8종류의 생활품을 허용한 사례도 있어

이번 설문조사는 ▲전통적으로 출가수행자에게 무소유의 계율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오늘날 한국 출가수행자의 사적소유 범위 ▲수행생활 유지에 따른 생활비 지출정도 ▲삼보정재 관리 대책방안 등 크게 3가지 항목에 걸쳐 조사됐다. 이 결과는 오늘날 출가수행자의 경제행위 및 삼보정재 실태와 관리방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이 4%에 불과한 반면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에 한해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75.3%로 주류를 이뤘다. 또 사적소유를 허락하지 않고, 삼의일발의 원칙을 고수하지는 응답이 20.7%로 나타났다.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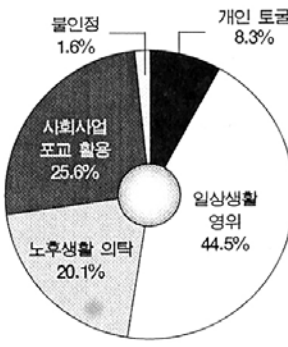
활동에 필요한 경비도 종단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출가수행자 생활비의 경우 55.7%가 일상경비로 월평균 10만원 미만을 사용, 내림한 생활이나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32.2%로 총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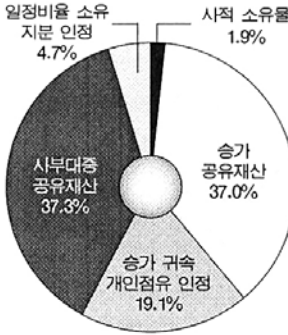
또 일상경비는 소속사찰의 소임실비(27.7%)와 은사 및 사행사제에게 받는 보시금(29.2%)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조달방법으로 소속사찰(39.8%) 총무원(27.4%) 교구본사(21.0%) 순으로 회답했다.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등의 소유에 대해

◇사적 소유의 구체적인 범위



◇삼보정재의 바람직한 소유형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가자는 수행과 전법을 위해 소유물을 관리할 뿐이다. 따라서 출가수행자 스스로가 자본주의 경제원리의 폐단을 인식해 계율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종단차원의 중앙집중방식의 삼보정재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장치 마련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시론

탈북자 동포애로 포용

황장업(黃長業)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과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成惠琳)의 조카 이한영(李韓永)씨 피격사건은 북한 체제위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탈북자들에 대한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들이다.

실적·테러위협에 불안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내부의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 등으로 탈북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당간부, 장교, 외교관, 작가, 과학자, 김정일 주변인물 등 북한 고위층의 망명 도미 노선상과 공범위험한 일반 북한주민들의 급증하는 탈북 등은 김정일정권에 대한 민심이란 현상의 한 단면이며, 김정일정권의 체제유지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회일탈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당국의 체제관리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과 함께 체제붕괴조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탈출한 북한주민의 수는 1천 5백~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많은 탈북자 중에서 '선택받은 은총은 소수'만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수의 탈북자들은 북한당국의 추적을 피해 고달픈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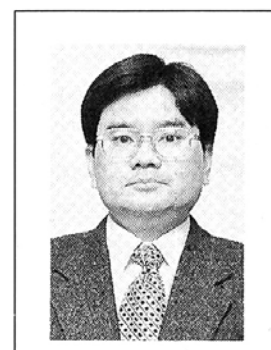
은총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겪어야 할뿐만 아니라 북한의 보복테러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 탈북자들은 북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한국사회에서의 빠른 적응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생활방식의 차이와 한국정부의 탈북자 대책의 미비 등으로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한영씨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는 탈북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체포조의 특 길을 피해 떠돌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정치적 고려에 따라 탈북자를 수용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자라는 하투 빨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전에 인도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탈북자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전원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유랑하고 있는 관련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고, 이들의 조속한 수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수의 탈북자들을 포용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역량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어떻게 그들을 북한주민을 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탈북자의 수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여 완벽한 탈북자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은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대기업 등의 민간단체 그리고 각종 종교단체 등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주민들은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교화(教化: indoctrination)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신민(臣民)으로 주조(鑄造)되어 왔다. 수동화된 탈북자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개인주의사회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생긴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탈북자의 재사회화(再社會化: resocialization) 교육은 물론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들간의 정신적·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고 유 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통일대비 국민의식교육

남북한 주민들간의 이질성, 즉 '서로 다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식통합사업과 재사회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탈북자들에 대한 재사회화교육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남한 주민들도 통일대비 차원의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사회화 교육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남한내부의 국민의식개혁과 민주질서 확립 등 통년대비 내부정비라는 차원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등 소유 '긍정'... "계율관 해이해졌다" 75.5% "일생활비 10만원미만" 56%...중앙집중식 관리 요구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에서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이라는 '백장청규'를 통해 노동의 대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출가수행자의 사적소유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75.3%)는 이번 설문결과를 출가수행자의 기본윤리인 '무소유' 경제관이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와관련 선우도량은 "오늘날 한국의 출가수행자들이 무소유의 원칙과 자본주의적 경제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활품 소유라는 현실적인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제로 사적소유는 최소한의 생활품의 범위를 정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물질문명이 팽배한 가운데에도 출가수행자들이 전통적 '무소유' 원칙을 '종단 등록(43.5%)'은 물론 '법인체등록(22.6%)'까지 포함시켰다. 또 77.8%가 스님의 입적시 사적소유물은 종단에 전부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단적으로 삼보정재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표출됐다. 이는 스님들의 노후복지나 각종 사회

서는 응답자의 11.7%만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을 뿐 대부분은 공동소유한다는 전제하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소유기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2명 중 1명은 자동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어 그 단적인 예를 보였다. 따라서 사적소유물에 대한 종단차원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렇다면 전통적 의미의 무소유원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출가수행자의 계율준수 문제(38.2%)'와 '일상생활에 대한 종단지원 문제(38.2%)'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75.5%는 '출가수행자의 계율관이 해이해졌다기 때문' '종단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의 이유로 삼보정재가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광 우 (전통문화연구원·불학박사)

우리, 절에서는 매년 정월 초3일(음력)부터 5일까지 3일동안 '양왕참(梁寶懺) 기도 법회'를 연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 법회는 <자비도량참법(慈心道場懺法)>을 의지해 제 1권부터 제 10권까지 절하여 독송한다. 동참대중이 다함께 하다보면 회향할 때는 1천배이상 절하게 된다.

<자비도량참법>은 미륵부처님의 현몽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중국 양(梁) 무제가 이 참법을 닦아 황후 치(敎)씨를 제도해 '양왕보참(梁寶寶懺)'이라고도 한다.

춘년여 동안 전해오는 그 인연은 이렇다. 부인 치씨가 죽은 후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무제의 침전에 큰 구렁이

가 나타났다.

"요망한 물건이 나를 해하려는 것"이라는 무제의 호통에, 구렁이는 사람의 말로 '옛날의 치씨'라며 살아서 질투하고 성품이 혹독했던 죄로 이런 몸을 받았다

고 호느며 울었다. 그리고는 무슨 공덕이든 지어서 제도에 달라고 간청했다.

무제는 이를날 스님들을 모아 구제할 방안을 찾도록 했다. 이때 지공스님이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참법(懺法)을 정성스럽게 행해야 한다'고 권했다.

무제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 불

남의 죄업도 내 허물삼아

경에서 부처님 명호를 기록하고, 나아가 생각을 펴서 참회문을 엮어 열심히 예참하였다. 그후 어느날 궁전에 향기가 진동하면서 주위가 아늑해지더니 한 천인이 나타나 "폐하의 공덕을 입어 도리천에 왕생하였으며, 이제 본신을 나타내어 영험을 보인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 禪書의 白眉, 禪文學의 眞髓

碧巖錄譯解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入

● 정가 330,000원

● 3월중 출간예정

● 先주문시 20% 할인해 드립니다.

碧巖錄

중국 송나라의 환오(圓悟)가 설부(雪竇)선사가 지은 송고집(頌古集)을 강설한 선수행의 뛰어난 지침서. 10권. 碧巖集

열반하신 일우스님이 현토(縣吐)하시고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혼을 기울여 필사하신것을 고급 한지에 담아 낸 소장 가치가 높은 벽암록 역해서의 완결판!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나 술어 故事들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와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뜬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738-6270, 735-7202 팩스: 733-1016